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국제심포지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

Dance Audio Description

2020.
10. 21 (수) 14:00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주 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중앙선데이 제공

www.dcdcenter.or.kr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국제심포지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

Dance Audio Description

2020. 10. 21 (수) 14:00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주 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무용음성해설 국제 심포지엄

사회 **이해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교수

14:00-14:05	개회사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14:05-14:10	축사	**구자훈** 국립무용원 추진위원장 / 前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
14:10-14:45	기조발제 움직이는 단어 - 음성해설을 통한 움직임, 무용에서 해설로의 여행	**엠마-제인 맥헨리** 무용음성해설가
14:45-15:15	발제 I 예술의 접근성과 한국에서 무용음성해설의 현재	**최석규** 아시아나우(AsiaNow)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15:15-15:45	발제 II 베리어프리 공연의 법적 함의	**정희경** 법무법인 한경 파트너 변호사
15:45-16:15	인터뷰	**피파 무어** 무용음성해설가
16:15-16:30	무용 음성해설 시연	**이경구** 고블린파티 안무자&무용수
16:30-16:45	휴식	
16:45-17:30	토론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정민** 무용평론가 **김길용** 와이즈발레단 단장

안녕하세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입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2년 전부터 '무용음성해설'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리서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문화예술에 소외된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용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무용음성해설이라는 분야를 예술계에 소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계 전반이 무용음성해설에 관심을 가지고 무용계와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사회를 맡아주신 이해준 한양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최석규 아시아나우 대표님, 정희경 법무법인 한경 파트너 변호사님 그리고 해외에서도 흔쾌히 참여해주신 엠마-제인 맥헨리 무용음성해설가님, 피파 무어 무용음성해설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심정민 무용평론가님 그리고 김길용 와이즈발레단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현장행사와 온라인 이원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루어지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무용음성해설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제]

움직이는 단어

- 음성해설을 통한 움직임, 무용에서 해설로의 여행

발제자

엠마-제인 맥헨리
Emma-Jane McHenry

무용음성해설가
스코틀랜드 국립 발레단 교육 담당관 역임
스코틀랜드 음성해설협회 무용음성해설 훈련
런던 보컬라이즈 무용음성해설가 활동
영국 리즈 대학교 브레튼 홀 칼리지 무용 학사

스코틀랜드 국립 발레단,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클레어 커닝햄, 캐롤라인 보디치,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등 다수 무용음성해설 활동

움직이는 단어

- 음성해설을 통한 움직임, 무용에서 해설로의 여행

엠마-제인 맥헨리

무용음성해설가

음성해설은 전맹 및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말을 통하여 예술과 공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누구나 무용과 극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음성해설이 장벽 없는 공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나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이며 예술팀과 시각 장애 관객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다.

1980년대 영국에서는 극장 공연에 음성해설을 하는 시도와 실험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 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기반의 스코틀랜드 발레단은 1998년에 발레 공연 실황을 최초로 음성 해설한 발레단으로 기록되었다. 그 곳에서 음성 해설자로서 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전문 무용수 훈련을 받았고 20여년 넘게 무용 교육에 힘써왔다. 주로 모던 및 컨템포러리 댄스 및 발레 스타일로 작업했으며, 독립적인 안무가, 발레 및 현대 무용단과 협업하고 지난 10년 간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해설가로 일했다.

스코틀랜드 발레단 교육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음성해설을 알게 되었고 음성해설가 훈련을 받았다.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음성해설협회가 제공한 일반 교육과정이었다. 이후에 모든 형식과 창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무용 해설가로서 나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전시켰다.

무용을 볼 때 사람들이 모든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받아들인다. 청각, 시각, 촉감 및 후각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오감 중 어느 하나라도 빼앗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한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그림은 아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음성해설가의 역할이다. 음성해설가로서 우리가 하는 도전은 매우 짧은 시간, 아마도 행동이 진전되기 1~2초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설명할 것인가가 언제나 관건이다. 묘사하고 있는 작품을 기리고, 순간을 부각시키고,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다른 감각들도 함께 작용하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어떤 공연이든 한 순간에 여러 활동이 겹겹이 진행되며, 그 사이로 우리의 길을 창조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 관객이 공연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비장애인 관객들과 시각 장애인 관객들이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결여된 부분을 메꾸어야 한다.

움직이는 단어-
음성해설을 통한 움직임,
해설을 통한 무용에서 해설로의 여행

다양한 단어로 움직이는 신체를 설명할 수 있다. 신체 운동성, 역동성, 공간, 다른 무용수와의 관계, 스토리 및 정서적 콘텐츠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이는 무용을 음성 해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일부일 뿐이다.

시각장애를 가진 관객은 움직임, 공간에서의 신체 이미지, 과거에 보았던 공연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무용을 관람한 경험만 가진 사람도 있고, 신체적 감각이 있거나 무용에 대한 청각적 감각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치와 성격적 특성에 따라 해설가가 전달하는 정보와 언어를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발레, 현대 무용 수업 및 안무 작품, 창의적 탐색, 신체에 대한 교육, 창작을 촉진하는 활동 등 무용에 관하여 일생 동안 쌓아온 결과물이 나의 해설에 녹아 들어 있다.

연습실에서 마이크로 이동한 무용해설가로의 여행에서 얻은 실전 경험과 기술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에서 해설가로서 활동한 경험을 나누고 멋진 기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개발하길 바란다.

오랫동안 협업을 해온 안무가 마크 브루(Marc Brew)가 나에게 음성 해설자를 의뢰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마크는 당시 김보라 안무가와 협업하였고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공·空·Zero: 제한, 몸 그리고 시간>을 함께 작업하였다. 이 때 나는 영어로 음성 해설을 하였으며 이를 박재용님이 동시통역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나우(AsiaNow)의 최석규 프로듀서 및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교류를 맺을 수 있는 크나큰 행운을 얻었다. 이후 최석규 프로듀서의 초청을 받아 포용적 방안 개발을 위해 열린 2019년 국제 장애인 예술 워크숍 및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무용 음성해설자 훈련 및 양성 프로젝트가 탄생했으며 2020년 7월부터 줌(Zoom)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흥미진진한 시간과 유익한 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를 육성하며 다른 해설자와 아티스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공연과 시각장애인 관객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접근가능한 서비스와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다.

Moving Words

- Moving Through Audio Description, a Journey from Dance to Description

Emma-Jane McHenry

Dance Audio Describer

Audio Description is the means of making the arts or performance accessible through words to blind or partially sighted people. It has long been my belief that Dance, and Theatre should be accessible to all and Audio Description is one element in providing barrier free performance experiences. I see myself as part of the process and in the midd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ic team and the visually impaired audience.

In the UK, trials and experiments in Audio Describing live theatre happened throughout the 1980s, it had been present in America before that. In 1998 my home Ballet Company, Scottish Ballet, became the first major ballet company to Audio Describe a live Ballet. This is where my journey as an Audio Describer started.

I trained as a dancer and have worked for over 20 years in Dance Education. I have worked mostly within the styles of Modern or Contemporary Dance and Ballet. For independent Choreographers, for Ballet and Modern Dance Company's and for the past 10 years as a Describer for th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It was through working with Scottish Ballet as an Education Officer that I discovered Audio Description and trained as an Audio Describer. This was a general training delivered in my home country of Scotland by Audio Description Association Scotland. Since then I have developed my own practice and specialism as a Describer of Dance in all its forms and creative processes.
On observing dance: when we think about how we receive information, if we have all our senses, we do so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We receive an incredible amount of information of any given situation through our ears, our eyes, our touch and our smell. If any one of these senses is taken away, we can still create a picture in our minds, but it is not a complete picture. It is my job as an Audio Describer to fill in the gaps. My challenge as an Audio Describer is to verbally describe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perhaps a second or two before the action has moved on. How much, how little is always the question. It is my role to honor the work I am describing, to highlight moments, to fill in the gaps while leaving space for the other senses to act as well.

In any given performance there are layers of activity going on in any given moment, I have to weave my way through them, guiding the Visually Impaired audience on a journey through the performance. Where possible I try and fill the gaps in a Visually Impaired audience members experience, aiming for them to have as much of an enriched experience as a sighted member of the audience.

Moving Words - Moving through Audio Description, a journey from dance to description.

There are many words to describe the body in motion. Many elements to include physicality, dynamics, space, relationship to other performers, story and emotional content. These are just some of the areas to consider when Audio Describing Dance.

The visually impaired audience may hold memories of movement, imagery of bodies in space and snap shots of past performances. Their only experiences of dance may be as a non-sighted person, they may have a physical sense, or an aural sense of what dance is. Everyone is receiving the information and language I am conveying to them through their own personal lens, as a result of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s and make up.

My descriptions are built up from a lifetime of dance; of ballet and modern dance classes and choreographies, of creative exploration, teaching bodies and facilitating creativity in others.
I come to you, to share with you my practice and transferable skills. My journey as a dance describer from the studio to the microphone.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s as a describer based in the United Kingdom (Scotland), To share the wonderful opportunities I have and continue to develop in your beautiful country of South Korea.

My journey an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started when I was commissioned in 2018 as an Audio Describer by a long-term collaborator and Choreographer Marc Brew. Marc was working with the choreographer Bora Kim at the time. They were collaborating and created the choreography Zero: Restriction, Body and Time as part of the closing programme of the yearlong UK/Korea 2017-2018 Creative Future, Festival of the Arts and Disabilities: Beautiful Differences.

I delivered a live Audio Description (in English) which was simultaneously translated into Korean by Jaeyong Park.

As a result of this I have been supremely fortunate enough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Kyu Choi, Asia Now and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re. Kyu Choi invited me back in 2019 to present and be part of the Arts and Disability International workshop and conference – Developing an inclusive approach. A project to train and develop Audio Describers of Dance in South Korea has grown out of this and through Zoom, we began delivery of this in July 2020.

Exciting times and fruitful collaborations, allowing me to further develop my work, foster ideas and helping other describers and artists to grow. As well as assist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vision of an accessible service and a creative process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performance and visually impaired audience.

A journey from Dance to Description.....Moving through Audio Description.

무용음성해설
국제 심포지엄

[발제 I]

예술의 접근성과 한국에서 무용음성해설의 현재

발제자

최석규

2005-2014 / 2019-현재
아시아나우(Asianow)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2015-2018
영국문화원 한영예술교류의해 예술감독

2019-현재
아시아프로듀서 플랫폼 기획운영위원

2012-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1994-2010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예술의 접근성과 한국에서 무용음성해설의 현재

최 석 규

아시아나우(AsiaNow)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장애 인식의 전환

김도현은 <장애학의 도전-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에서 처음으로 '장애학'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관점 변화를 위한 '장애학의 도전'을 언급한다.

"시좌, perspective는 일본식 용어인데, 관점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사물을 볼 때 사람마다 보이는 다른 면을 뜻한다면 시좌는 '보는 자리'라는 뜻이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시좌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세계의 중심과 변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두 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분명이 다를 것이다. 시좌를 넓힌다면 세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표현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장애는 "차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특정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그리고 장애문제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 인식개선 보다는 '인식전환'이라는 단어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동시대적 가치의 변화

세계적인 신 자유주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COVID-19과 팬데믹 등의 사회 현상은 현대 사회구조와 우리 삶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시대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치"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문화와 예술 현장의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복지와 인권 그리고 향유자 확대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던, '장애', '나이 듦', '젠더', '여성', '성 정체성', 그리고'성소수자(LGBTQ)'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 예술가들의 관점과 창작 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공공극장과 축제 등에서도 관객의 관람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대 예술 영역에서 장애 예술의 관점

창작 영역에서 장애와 예술은 그간 "관용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와 다름"의 장애 예술의 미학 찾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객 개발 영역에서도 주로 영화와 TV 분야에서의 베리어프리 작품은 이제 공연예술 영역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창작의 단계에서 다름의 감각을 가진 장애 관객의 작품 관람을 위하여 창작 초기단계에서 미학적 접근성을 기반한 작품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와 예술의 창작과 제작이 베리어프리 작품 제작이라는 장애인 관객 개발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니라, 동시대성의 예술의 세가지 관점에 출발해야 한다. 즉 평등성(Equal Opportunity),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포용성(Inclusion)에 기반한 예술의 접근성(Accessibility)의 관점으로 장애예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무용음성해설(Dance Audio Description) 및 해설가 개발 워크숍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워크숍은 무용 분야의 음성 해설 방법론을 연구하고, 한국 무용계에 부재한 무용음성해설가를 개발하며, 민간과 공공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전문적인 인력 개발과 무용계에 장애와 예술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기획된 것이다. 워크숍 후, 위의 세가지의 기획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겨주었다.

무용음성해설이란?

즉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질문은 무대의 시각적 정보를 표준화된 해설 중심만이 아닌, 무용수의 움직임, 장면, 공간이 만들어내는 은유적이며 추상적인 이야기로 충만한 무용의 음성해설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다른 가였다. 왜냐하면 무용의 생동감, 질감, 감정과 느낌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무대위에서 보여지는 정보와 더불어 안무가와 무용수의 암시와 추상성을 함께 묘사해야 하므로, 연극과 영화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해설하기는 무용의 다이나믹, 질감 그리고 느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용음성해설이 가져야 할 음성해설의 기본값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였다. 매우 어려운 난제일 수 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일 수 도 있다.

남겨진 과제

구분	내용
연구	무용/동작의 언어화 과정 연구 몸짓언어 사전 / 음성해설 대본연구 다양한 무용장르별 음성해설 방법론
실습	프로그램노트작성 실습 작품 보고 대본작성과 토론, 모니터링 실습 터치투어 실습
멘토링	창작 경험자와의 대화 전문가와의 대화
제작	작품 창작

한국 무용계에 부재한 무용음성해설가 개발을 위해 무엇이 필요 한가였다. 음성해설가는 시각장애인(전맹, 저시력)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하게 작품을 접하게 하고, 예술작품의 미학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용음성해설가가 하나의 창의적인 전문직으로 개발 되기 위해서 "음성해설 대본을 작성을 위한 시각적인 무용언어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이것을 청각적으로 읽기 위한 글쓰기에 대한 전문 능력 개발, 마지막으로 라이브 무대의 작품을 관객에서 전해줄 낭독 능력개발에에 대한 많은 연구와 워크숍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였다.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민간 현장과 공공 전문기관의 효과적인 협력과 무용계에 장애와 예술을 위한 지속가능한 플랫폼은 무엇인가이다. 이번 워크숍은 (재)국립현대무용단,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두개의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프로듀서그룹 도트, 아시아나우(AsiaNow)의 공동 주최와 주관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민간과 공공 영역이 서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어떤 협력으로 무용예술 현장에서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접근성 확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겨 주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 모두가 무용음성해설가로 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워크숍 후, 창작자들은 인식을 했던, 하지 못했던 간에, 그간 자신의 창작영역에서 배제되어왔던 <예술의 창작 영역에서 접근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앞으로 창작자들에게 "무엇이 다른 감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예술의 접근성 제공인가"를 각자가 고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 시간이었다.

무용음성해설
국제 심포지엄

[발제 Ⅱ]

베리어프리 공연의 법적 함의

발제자

정희경

법무법인 한경 파트너 변호사

제13회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강북문화재단 감사
서울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권경영위원

베리어프리 공연의 법적 함의

정 희 경

법무법인 한경 파트너 변호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래 장애인의 차별 관련 시정권고를 꾸준히 내 오다가 2010년 이후 장애인의 각종 시설의 이용권 및 접근권 관련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차별시정 권고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이후 웹사이트,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 이르러서는 "영화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영화를 볼수 있는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며, 그 이유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리 법원은 2017. 12.경 영화상영업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파일 제공 또는 화면해설점자문서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이후 영화계에서 베리어프리 지원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그 외의 문화예술장르, 특히 공연과 관련한 베리어프리 논의는 극장의 물리적 접근성 중심의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음성해설 및 자막, 수어통역 등을 통하여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는 아직 제도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 확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영화 외의 예술 장르, 특히 무용과 같은 무대 공연과 관련하여 베리어프리의 취지가 관철되는 권고 및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시행 내용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공연의 온라인 중계가 활성화되는 맥락에서 보면, 베리어프리의 진정한 취지는 극장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아닌 공연 콘텐츠 전달의 접근성 측면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베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관련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주체들이 위와 같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

I n t e r v i e w

피파무어 Pippa Moore는 영국의 로열발레어퍼스쿨 Royal Ballet Upper School을 졸업한 뒤 1996년 노던발레단 Nothern Ballet에 입단하여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해왔다. 그녀는 지난 26년간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Scottish Ballet, 비엔나발레단 Weiner Ballet, 로열발레단 The Royal Ballet등에서 활동해왔으며 2019년 은퇴 후 노던발레단의 예술교육 어시스턴트 Artistic & Learning Assistant로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발레단의 음성해설, 터치투어, 시각장애관객을 위한 워크숍 등을 이끌고 있다.

모더레이터 장수혜는 무용분야 독립 프로듀서로 미국 시애틀무용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국내외 무용축제에서 국제교류담당 PD를 역임했고, 현재 문화예술기관, 공연예술단체의 국제교류와 기획 및 업계에 필요한 활동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 책누나프로젝트의 대표로 2014년부터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피파 무어의 새로운 커리어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짧은 인터뷰를 나눈다. 현재 노던발레단에서 예술교육 어시스턴트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짧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무용음성해설을 접하게 된 계기, 무용수 출신 음성해설가로서 어려운 점과 장점, 그 동안 음성해설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향후 무용음성해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위한 조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모더레이터 및 글 **장수혜**
국제공연예술프로듀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 Northern Ballet's Production of Victoria in 2019

피파 무어
Pippa Moore

무용음성해설가

영국 노던 발레단 아티스틱 스태프
영국 노던 발레단 코치 및 지도
영국 노던 발레단 수석 무용수 역임
영국 로열 발레 어퍼 스쿨 졸업

영국 노던 발레단의 전체 레퍼토리,
매튜 본 <빨간 구두>, <백조의 호수> 무용음성해설

무용음성해설 시연자

시연작품
오하드 나하린 <마이너스 16> 중 하이라이트
영화 <빌리 엘리어트> 중 인트로

이경구

고블린파티 안무자&무용수

2019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무용작품 <루돌프> 안무 및 출연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작 <여우와 돌고래> 안무 및 출연
2018 일본 오도루 아키타댄스페트시벌 초청작 <꿔다놓은 보릿자루> 안무 및 출연
2019 Beijing Dance Festival 초청작 <응답해요 휴스턴> 안무 및 출연 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학부 현대무용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졸업

사회자

이해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교수
한국현대무용협회 회장
밀물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한국무용협회 이사
한국무용학회 이사
한국무용과학회 이사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前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서울예술단 이사장
LG연암재단 LG아트센터 운영국장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심정민

무용평론가 / 비평사학자

前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 심의·평가·자문

저서
『무용비평과 감상』(2020), 『춤을 빛낸 아름다운 남성무용가들』(2019) 외 다수

김길용

와이즈발레단 단장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한국무용협회 발레분과 위원장

前 조승미발레단 상임안무가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2018 예술경영지원센터 표창
2017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03075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67번지 (어젤리아명륜1) 4층
TEL 02)720-6202 **FAX** 02)720-6272 **Homepage** www.dcdcenter.or.kr